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8면 (B해)
제1독서 : 다니 12, 1 - 3
제2독서 : 히브 10, 11 - 14, 18
복 음 : 마르 13, 24 - 32

숲 정 이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 지라도 내 말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 13, 30-31).

강론

소리

안일과 나태가 얼마나 큰 죄일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안득수/전주교구 평협회장

얼마 전에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던 40대 남자형제 한 분을 보았다. 그분은 이 세상을 하직하기 약 일주일 전에 그분과 가장 가깝고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돌아서는 친구를 다시 가까이 오도록 손짓하며 부르더니 손바닥에 무어라고 글씨를 써주었다. 종이와 볼펜을 쥐어 주니 떨리는 손으로 “영세하라, 주님영광 위하여”라고 마지막 부탁을 남기고 평화롭게 주님의 품안에 안기었다. 평소 성실하며 레지오 단원이기도 했던 그분이 죽음을 불과 얼마 남겨놓고 입이 다다서 말도 못하는 처지에서 자기에게 할애된 단 몇 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는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케하는 기회를 주었다. 어떤 성현은 “Time is Money” 즉 시간은 돈이다. 세속적으로 보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잘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이 좌우되는 것이다. 우리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밖에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첫째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둘째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셋째 “너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시간은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사와 안일과 나태의 삶에 머무르고 있다. 얼마 안있으면 구원될 수 없는 때가 임박하고 있는데도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 즉, 만전만 피우는 데에 정신을 팔고 있다. 제발 내 정곡을 찔러다오 하시며 지금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안달하고 계신다. 「폴리오」 이는 누구에게 밀착되다는 뜻이다. 룯기에서 룯은 시어머니결을 떠나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결을 떠나갔다. 모압여자 룯은 훌륭한 가문의 유력한 재산가인 보아즈를 만나게 되고, 그의 혈통속에서 다윗과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영광을 맞는다. 자유를 얻기 위해 부모를 떠난 당자는 오히려 사랑의 속박에 얽매인 노예가 되었다 (루가 15, 13). 하느님께 밀착된 자만이 참다운 자유와 해방이 있게 된다. 하느님께 밀착된 자에게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에 이것을 따를때 참다운 자유가 있게되며하느님의 속박(폴리오)을 벗어난 순간, 악마의 속박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베소라 65호).

우리들의 나태와 안일 뒤에 곧 악마의 속박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교회 공동체 안의 모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의를 다하여 자기 주인에게 복종(에페소 6, 5)하여야 할 시간을 바로 찾아야겠다.

수 천 마디의 말보다 한 방울 참회의 눈물이 아쉬운 계절이다. 나는 모른다. 나는 깨끗하다. 나라 망쳐놓고도 뻔뻔하게 오리발만 내미는 중인 나우리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연회궁에 앉아 계시실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그러나 정작 울어야 될 사람은 울지않고 울지 않아야 될 사람이 울고 있는 세상이다. TV 뉴스에 3~4초나 비추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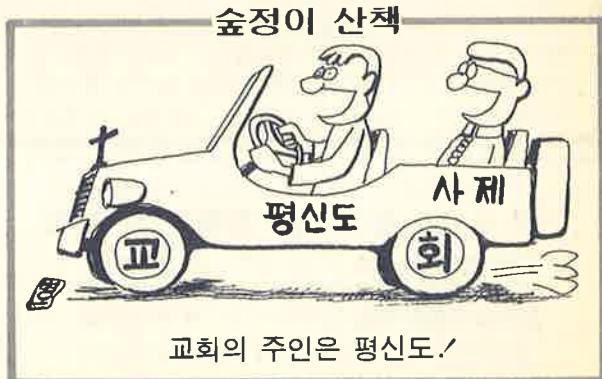
철거반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온몸에 피칠을 한 사당동 재개발 지구의 철거민. 마흔이 넘은 듯한 초라한 우리 가장은 울고 있었다.

누가 그 가장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 수 있을까? 그 눈물은 어제 오늘의 일도, 그들만의 눈물도 아니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4만 2천 채의 빈민주택이 헐렸거나 헐리고 있고 또 3만 6천여 동이 재개발 지구로 지정돼 헐려야만 할 운명에 처해 있다.

돈 없다는 죄 하나로 달이나 보고 살야야 하는, 분양권 따지 한 장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강탈 당해야 하는 우리 초라한 이웃의 눈물 바람은 언제나 그쳐질 수 있을런지.

하나같이 번질거리는 얼굴로 수 천, 수 백억을 쉽게 입에 올리는 높으신 분들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흐를 때는 아닌지.

맑게 갠 가을 하늘은 두 달이 넘도록 비를 뿌리지 않고 있다.



■ 평신도 주일 ■

사도직에 불리운 평신도

사도적 활동을 하느님의 백성이 더욱 활발히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평신도 사도직은 그리스도 신자로 불리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평신도들의 사도적 활동이 초세기 교회에서 얼마나 자발적이었으며 얼마나 풍부한 효과를 내었는지를 성서가 명백히 증명해 주고 있다(사도11, 19-21).

교회의 사명에 참여

교회 창립(敎會創立)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퍼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한 신비체(神祕體)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모든 지체(肢體)들을 통하여 이 사도직을 여러가지 모양으로 실천한다. 교회 안에는 여러가지 직책이 있지만 그 사명(使命)은 오직 하나 뿐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성화하며 다스리는 임무를 그리스도한테 받았다. 평신도도 또한 그리스도의 사제직(司祭職), 예언자직(豫言者職), 왕직(王職)에 참여하며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자기 나뉠이로 완수하고 있다.

평신도 사도직의 기초

평신도는 사도직 수행의 권리와 의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일치에서 받는다. 평신도는 성세성사로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가 되고 견진성사로 성신의 힘을 받아 강해졌으며 주님으로부터 사도직 수행의 사명을 받았다. 평신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다운 사제직에 참여하도록 축성된 것은 모든 활동으로 영적제물을 봉헌하며, 세상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이다.

영적생활(靈的生活)

평신도 사도직의 풍요한 결실은 분명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일치에 달려 있다.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결합된 이 생활은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수단으로 양육되며, 특히 전례에 행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육된다. 평신도로서 이런 영적수단을 이용함에 있어서, 일상 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며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자기생활에서 분리시키지 말고 오히려 맡은 일을 하느님의 뜻대로 계속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더욱 깊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평신도사도직 관한 교령〉 중에서



성서와 함께

26. 성서시대의 역사(H) : 홀로남은 유다왕국

이 시기의 연대는 비교적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BC 721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BC 587년까지이다. 열왕 후 18-25장과 역대 후 29-36장이 이 시기의 역사를 전해주고 있다.

처음 반란은 아씨리아가 유다왕국에 종주국으로 행세하면서 유다를 무력으로 함락하려고 했다. 예루살렘에서 아씨리아에게 포위를 당한 히즈키야왕은 518m나 되는 긴 굴을 파서 상수도를 만들었다(역대 후 20, 20). 이 상수도용 굴은 지금도 남아 있다.

열왕 후 18-19장에 의하면 아씨리아의 산헤립이 유다를 침입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헤립이 갑자기 철수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안전하게 되었다(이사 37장 참조).

650년 이후 아씨리아엔 내란이 잦았고 대제국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다. 아씨리아의 수도 니니베는 612년 메데스와 바빌론의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아씨리아왕국의 남은 지역도 에집트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605년 카르카메스 전투를 끝으로 바빌론 수중에 떨어졌다. 이로써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국의 서쪽 변경을 완전히 평정했다. 한편 유다왕 여호야קים은 현명치 못하게도 바빌론에게

패배하게 될 에집트와 동맹함으로써 느부갓네살왕의 미움을 샀다. 마침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젊은 새 왕 여호야킨을 위시하여 모든 왕족과 귀족들이 직위를 박탈당했다. 여호야킨의 삼촌 시드키야가 바빌론의 꼭두각시로 왕위에 올려졌으나, 반란을 시도하다 587년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여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이 시대의 초기에 두드러지게 활약한 예언자는 이사야였고 말기에 예레미야가 왕국의 멸망에 즈음하여 백성들에게 경고와 희망의 소식을 전했다. 아씨리아에 대한 사대사상이 유다 전역을 지배한 탓으로 아씨리아식의 우상숭배가 성행하여 곳곳에 바알신앙과 아세라 목상이 판을 쳤다. 히즈키야가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후계자인 므나세가 다시 어지럽혔다. 우상숭배는 므나세 치세 때 절정에 달했는데 이 왕은 자기 자식들까지도 불에 살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쳤다.

이 시대의 중요한 종교적 업적으로 신명기의 최종편집을 들 수 있다. 7세기 초반에 완성된 이 법전은 한 때 유효되었다가 요시아왕이 한창 개혁을 주도하던 도중에 발견되어 쇠신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원동력이 되었다(열왕 후 22-23 장).

“발표력을 기릅시다. 웅변을 배웁시다”

'88.유치부 원아모집. 방학특강반모집

- 호남웅변종합학원 (구. 서중로터라) ☎ 3-3284
 - 새호남웅변종합학원 (진주역 앞) ☎ 4-3948
 - 효자웅변종합학원 (효지쌍용APT 앞) ☎ 83-8331 ~ 2
- 원장 유 병철 (베드로) · 원감 박 경애 (인젤라)

전북 의료보험조합지점 김안과의원

부설 : 신세계 안경
국제 콘택트 렌즈
원장 : 김효열 (한리꼬)
전은주 (베로니카)
전주 코아백화점 옆 중앙성당 앞
☎ 85 - 3020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어
최윤경 (유리인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3-2496-2-8653

교 구 소 식

1. 교구 인사위원회: 15일 10시30분 장소-교구청 회의실
 2. 전주교구 가톨릭 언론인회(C. J. C)피정: 11월12일-13일 장소-진안 어은동 공소
 3. 전주지구 가톨릭 운전기사회(성운회) 모임: 20일 오후7시 장소-평협회관
 4. 혼인강좌: 27일 오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참가비5,000원 준비물-필기도구
 5. 중·고 교리교사 성탄연수회: 20일 오전9시30분-오후18시 장소-가톨릭센터 내 용-강의, 부서별 연수 · 대립교리 · 성극지도의 이론과 실제 · 소창 및 포크댄스 준비물-미사, 필기도구, 소창 연수자는 운동화, 바지착용
 6. 성소자 모임: 27일 오후2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중·고·대·일반
 7. 신학교 원서교부: 15일(화)-23일(수) 평일(오전9시-오후5시) 토(오전9시-12시) 주일은 제외. 원서교부및 접수장소-교구청 교육국(85-0041)
 8. 박창신 신부 테러사건과 전동성당 방화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기도회: 11월14일 오후6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주최-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 ※ 축! 영명 성알베르토(15일): 오기순 신부님 축하합니다.



★ 감사드립니다.

교구 연합 성가대의 발표후 처음 가진 제2회 그레고리오 음악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하여 주십시오.

★ 성지개발과 5위 시복 시성을 위한 가정 봉헌서의 배달이 완료 되었습니다. 곧 작성하시어 보내주시십시오.

★ 치명자산 성당이 완공 될 때까지 금요일(10시 30분) 미사는 계속됩니다. (우천시는 말씀의 전례)

두레상 — 세계 성가대회를 앞두고

T 임파구와 음식

이상구 박사의 TV특별 초청강연 「한국인의 건강」이 화제를 모으면서 양코리 방송까지 했다. 이 강연이 있던 후, "T임파구를 만들려 가자"는 유행어가 생겼다. 퇴근길에 한잔하며 유쾌하게 웃음의 꽃을 피우자는 뜻이다. T임파구는 백혈구 속에 있는 임파독소. 이 박사는 이 T임파구가 암세포를 죽이는 사진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사랑과 환한 웃음은 T임파구의 생성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살려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웃고 지내면 안 늙고 성내고 지내면 빨리 늙는다"는 동양의 생활철학, 一笑一怒一老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까마라 대주교가 가장 부도덕한 단어는 '분노'라고 갈파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특히 이박사는 치질 변비 대장암 등 질병의 원인은 모두 섬유질이 없는 동물성 음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하려면 과일 감자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처방도 제시했다. 섬유질에는 독성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어 질병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의 몸은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먹고 싶어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음식'으로 내놓은 의미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고 말했다. 에우카리스티아(성체성사)가 곧 '감사'의 뜻을 지닌 것도 의미심장하다. 항상 감사하는 맘으로, 화내지 말고, 사랑하며, 생명의 '음식'을 나눌 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그 '음식'을 나누는 우리의 표정은 너무 엄숙하기만 한 것 같다.

정신과학세미나

- 주제: 고도의 정신 및 두뇌 활용법
- 효과: 스트레스해소, 기억법, 집중력, 신앙심화, 수면조절법
- 일시: 11월 22일(화), 11월 25일(금) 오후2시·7시
- 장소: 군산시 신세계예식장 (군산시청 옆)
- 참가비: 1,000원
- ☎ 3-0881

원장 박은성(요한)

태평양회화전주영업소

산소를 만드는 신비
 옛센스 스쿠바렌은 심해상어
 간유에서 채취한 물질입니다.
 임은택(요셉) 박점순(마리아)
 전주시 중앙동1가915 신일권선교회 뒷문내
 ☎ 82-0090·4-6444

서범석 한의원

원장 서범석(필배)
 전주시 덕진동1가 1262-16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 72-2665
 75-3533

산데리아·스텐드·조명기구
 전기재료·각종전기공사·누전공사

XD 대광조명전기
 대표 김남주(레미지오)
 이리 중앙시장사거리 신화약국 옆
 ☎ (0653) 52-0569

한방보약·예방의약
 용(元茸) 九燕(九燕) 인삼



영세당약국

약사정우진(이시익) 황신숙(리브가)
 MPH
 전주시 완산교 사거리 ☎ 6-6422, 6-5326 ※ 일요일은 휴무

☐북전주지구 본당소식☐

* 중앙

사제관 77-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77-1711 보좌신부 김진홍
수·유 77-1712 사목회장 황의옥

* 11월은 위령성월입니다.

· 합동연도-18일(금) 어머니 미사후
먼저가신 조상님을 위해 미사는 합동예물로 봉헌 하세요.

*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2차헌금이 실시됩니다.

* 반미사: 16일(수) 오후 8시 7반-김병례(72-5994)

1. 감사합니다: 사제연례피정을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로 무사히 마쳤습니다(분당 신부)
2. 성모유치원 졸업여행: 18일(금)
3. 모임: 꼬미씨음-오늘 오후 2시 울뜨레아-16일(수) 오후 7시 30분 성모회-18일(금) 어머니미사후 꾸리아-다음주일(20일) 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1,279,000원 ☐ 교무금: 2,250,000원

* 서신동

사제관 | 4-2214 | 주임신부 박성팔
사무실 | 사목회장 박병열

* 벽돌 헌금 함: 우리들의 정성어린 벽돌 한장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 짓갈류 판매: 성전 신축을 위한 각종 짓갈류를 판매 합니다.

1. 금주 모임: 성조희-공식미사후 울뜨레아-공식미사후

차주모임: 꾸리아-공식미사후

2. 가정방문: 15일(화), 16일(수), 17일(목), 18일(금) 시간-오후 2시

금주본당 청소안내: 자비의 모후, 차주-평화의 모후

금주미사 안내: 평화의 모후, 교육 차주-매피의 모후, 홍보

금주미사 전례: 해설-신종현 독서①이부남 ②김춘자

차주미사 전례: 해설-신종현 독서①유충훈 ②윤덕남

☐ 지난주 봉헌금: 267,590원 ☐ 교무금: 153,500원

* 금암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오늘은 평신도 주일: 특별헌금 있음

1. 오늘은 친교주간: 반장님회의-공식미사후
2. 차주는 선교주간: 꾸리아회의-20일 오후 2시
3. 가정방문: 수(33반) 목(34반) 금(35반)
4. 신자등반대회: 27일 공식미사후 출발 장소-오봉산 회비5,000원 사무실에 신청 요망
5. 신설본당을 위한 헌금: 20일 미사중 실시
6. 사제피정 무사히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
7. 금주전례: 해설-신종현 봉헌-양재순부부
복사-윤기환 송호관 기도-14반, 15반, 16반
8. 차주전례: 해설-김종구 봉헌-한철수부부
복사-최계호 서범식 기도-17반, 18반, 19반
9. 미사안내: 상아보탑Pr 차주-신비로운 장미Pr

☐ 지난주 봉헌금: 새벽 181,930원(199명) 공식 354,500원(388명) 저녁 152,010원(172명) 합계 736,340원 ☐ 교무금: 526,000원

* 송천동

사제관 주임신부 김태윤
사무실 74-1004 사목회장 소병을
수녀원 4-1142

1. 뽕잎 성령세미나: 21~25일까지 접수마감-19일 참가비 3,000원

2. 축! 영세: 소년원생 21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 전신자 연도대회: 16일 저녁미사후 구역별 단체별 참가바람

4. 청년성가대 연습: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5. 다음주일은 교부님 봉헌주일입니다.

6. 금주본당 청소: 송천6, 11구역 19일 오전 11시

7. 금주전례: 해설-이길호 독서·기도-애령분과

차주전례: 해설-박세영 독서·기도-여성분과

☐ 지난주 봉헌금: 321,560원 ☐ 교무금: 158,000원

☐ 신설본당을 위한 2차헌금: 100,000원

* 덕진

사제관 72-3389 주임신부 성태수
사무실 3-2182 사목회장 양상렬
수·유 72-1222

1.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습니다.
2. 베드로회: 공식미사후(2층 회의실)
3. 성화회: 공식미사후(사목회의실)
4. 예루살렘 부녀회: 16일 오전 11시 성당에서
5. 청년 성가대 성탄 성가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모임시다: 연습시간-매주 수·목·금 저녁미사후
6. 연도 대회가 있습니다: 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7. 금주가정방문: 덕진6반, 7반
8. 신일하신 교부님 납입에 정성을 드립시다.
9. 금주전례: 해설-박기자 복사·독서-요셉회
기도-덕진3반
차주전례: 해설-정석의 복사·독서-베드로회
기도-덕진4반
10. 금주본당 청소: 능하신 동정녀Pr-19일 오후 1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790,275원 ☐ 교무금: 830,000원

*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소순협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박영철
수녀원 77-4212

1.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2차헌금)
2. 가정방문: 15일-동산3구역, 16일-동산5·6구역 17일-동산4구역 18일-동산8구역
3. 구역미사·모임: 미사(15일)-화전, 나눔잔치(16일)-동산4, 8구역 모임(18일)-성덕
4. 모임: 오늘 공식미사후-사목회, 안나회총회, 글라라회, 14일(월)-울뜨레아 차주공식미사후-구역장회, 모이세회
5. 금주청소: 자비의 모후Pr, 차주-평화의 모후Pr
6. 금주전례: 해설-손태규 독서①노대권 ②김영원
차주전례: 해설-한기철 독서①강용준 ②신문자

☐ 지난주 봉헌금: 300,590원 ☐ 교무금: 296,000원

☐ 수요헌금: 62,700원

* 숲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이규철
수녀원 3-9567

* 오늘은 평신도의 날입니다(2차헌금 있음)

1. 오늘모임: 울뜨레아(공식미사후) 2. 사목회: 15일(화) 오후 8시

3. ME주말: 이종상(아오스당) 박선희(미카엘라)부부 (18일~20일) 4. 10월 영세자 찾고백: 19일(토) 오후 4시 30분

5. 축! 결혼: 신랑-이상진(아교버) 신부-이미이(안나) 19일(토) 오후 1시 20분

6. 가정방문: 16일(수)-진북1동1구 17일(목)-금암2구 19일(토)-금암1구 7. 다음주일: '88 신설본당위헌 2차헌금있음. *모임-꾸리아 12사도회

8. 소록도 방문: 21일(월) 대상-전신자 참가비-만원(도시락제공) 9. 금주본당청소: 화-바다의 별 토-셋별의 모후

10. 미사해설: 이종상 11. 미사안내: 하늘의 문

12. 금주전례: 독서·기도-임창수 권정희

봉헌·기도-접이룡 박춘근

차주전례: 독서·기도-최종수 조현숙

봉헌·기도-조문영 이순남

☐ 지난주 봉헌금: 416,220원 ☐ 교무금: 187,000원

*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용복
사무실 86-5022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3-9236

1. 사목회: 13일 공식미사후
2. 성당 긴의자 및 온풍기 봉헌하실분은 신청바랍니다.
3. 성당 신축에 관심을, 정성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4. 판공성사 성경읽기: 에페소서 1장-6장
5.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6. 주일학교 성서 암송대회. 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7. 금주간 모임: 제대회 어머니미사후
8. 다음주 모임: 안나회
9. 연말 정산용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공무원, 회사원)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10. 예비자를 잘 인도합니다. 성탄 성세 예정일 12월 18일

☐ 지난주 봉헌금: 631,950원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289,640원 감사드립니다.